

## 청소년기의 부모감독 변화에 대한 부모애착의 효과

### Effects of Adolescents' Attachment to Their Parents on the Longitudinal Changes in Parental Monitoring

정윤주(Yun-Joo Chyung)\*

Department of Consumer and Child Studies, Incheon National University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1) whether the level of parental monitoring changes during adolescence; (2) if it changes, what is the pattern of the change; and (3) whether the effects of adolescents' attachment to their parents on parental monitoring are dependent on time. Six waves of data from the Korea Youth Panel Study (KYPS) were used to address the research questions. The participants of the KYPS were 3,449 (1,725 boys and 1,724 girls) adolescents who participated in the study once a year for 6 years (from the 2nd grade in middle school until their high school graduation). Latent growth modeling (LGM) was used to analyze the data. The findings are as follows: the level of parental monitoring significantly increased over the six waves of the study, and the adolescents' attachment to their parents was a time-dependent predictor of parental monitoring.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quality of adolescents' attachment to their parents is an important factor that makes a difference in the level of parental monitoring by, possibly, affecting the level of adolescents' disclosure to their parents.

---

▲주제어(Key Words) : 부모애착(attachment to parents), 부모감독(parental monitoring),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 시간의존적 효과(time-dependent effects)

#### I. 서론

부모감독은 양육행동의 한 형태로 청소년 자녀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다. 부모감독은 청소년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적응의 가능성을 낮추거나 부적응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 즉 부모감독이 적절히 이루어질수록 청소년은 자아존중감이나 자아탄력성 등 긍정적인 심리적 특성을 건강하게 발달시키며(B. Sohn, S. Kim, J. Park, & Y. Kim, 2012), 높은 학업성취를 보이고, 학교생

활에도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S. Lee, 2009) 나타났다. 또한 부모감독은 청소년의 비행, 외현화 및 내면화 문제행동, 음주, 인터넷 중독, 비행 또래에 대한 동조 등 청소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거나 문제를 완화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도 보고되어 왔다(H. Kim, 2009; J. Park & H. Doh, 2001; H. Cho & M. Yoon, 2010; Dishion, Nelson, & Kavanagh, 2003). 이와 같이 부모감독은 청소년이 건강하게 발달해 가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서 관심을 받고 있다.

---

• 이 논문은 인천대학교 2012년도 자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이 논문은 2013년 한국가정관리학회 공동춘계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Corresponding Author : Yun-Joo Chyung, Department of Consumer and Child Studies, Incheon National University, 119 Academy-ro, Yeonsu-gu, Incheon, 406-772, Korea, Tel: +82-32-835-8251, E-mail: ychyung@incheon.ac.kr

청소년 자녀에 대한 부모감독이 중요하다라는 인식에 따라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 청소년의 발달과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부모감독을 살펴본 연구들이 주를 이루는 반면 부모감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Laird, Marrero, & Sherwood, 2010). 부모감독이 중요한 만큼 효과적인 부모감독에 영향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는 것은 청소년들이 적절한 부모감독에 의해 건강하게 발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들을 알아내는 과정으로서 의미가 크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자녀에 대한 부모감독에 영향 미치는 변수로서 부모애착을 선정하여 부모애착이 부모감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청소년기는 자율성 발달과 심리적 독립이라는 발달과업을 성취해가는 과정에서 부모와의 관계가 변화되고 이와 관련하여 부모감독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전환적 시기라는 점에(Steinberg & Silk, 2003) 주목하여 청소년기 동안 부모감독이 변화되는 경향을 중단적 자료를 통해 살펴보고 예측변수로서 부모애착을 설정하여 이것이 부모감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부모감독은 자녀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적응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추적하는 것을 포함하는 양육행동(Dishion & McMahon, 1998)이다. 부모감독은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적인 생활을 하게 될 때까지 부모가 하게 되는 양육행동인데 자녀의 연령에 따라 감독의 방법은 달라진다(Steinberg, 2011). 영유아기 자녀는 부모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직접적인 감독이 가능하며 안전을 위해서는 직접적인 감독이 부모의 필수적 역할이기도 하다. 이처럼 영유아기에는 부모가 자녀의 일상생활을 직접 감독하고 그런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그러나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부모감독은 직접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게 된다.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고 학업과 또래관계 활동의 비중이 증가하게 된 청소년기 자녀는 많은 시간을 부모와 떨어져 보내게 되므로 이들에 대한 부모감독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청소년 자녀에 대한 부모감독은 청소년의 자기개방, 부모의 질문, 부모의 통제라는 세 가지 방식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Stattin & Kerr, 2000). 청소년의 자기개방은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생활에 대해 부모에게 알리는 것이고, 부모의 질문은 청소년의 생활에 대하여 부모가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며, 부모의 통제는 청소년이 어디에 가고 누구와 함께 있으며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부모에게 알리고 허락받아야 한다는 것과 허락받지 않은 행동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는 규칙을 부모가 설정하고 지키게 하는 것이다. 청소년 자녀에 대한 부모감독은 이처럼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관찰하고 감시하며 추적하는 등 부모의 일방적인 행동에 의해 이루어지기 보다는 자녀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생활에 대해 부모에게 말하거나 부모가 자녀의 생활에 대해 묻고 대화를 시작했을 때 응하거나 부모가 정한 규칙에 따라 자신의 생활과 활동에 대해 부모에게 알리는 등 자녀가 자신의 일상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야 가능하다. 즉 부모가 자녀를 직접적으로 감독할 수 없는 청소년기에 부모 감독이 가능하려면 자녀가 부모에게 자신의 일상을 개방해야 한다.

한편 부모감독을 연구하기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부모감독 척도의 항목들이 부모의 감독행동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감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부모지식(parental knowledge), 즉 부모가 자녀의 일상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고(Stattin & Kerr, 2000) 이에 따라 부모감독과 청소년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해석하게 되었다(Hamza, & Willoughby, 2011; Kerr, Stattin, & Burk, 2010). 이를 통해 부모의 직접적인 감독행동보다는 자녀의 자기개방에 의해 형성되는 부모지식이 청소년의 적응과 문제행동 예방에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모감독 요인이라는 점이 알려지게 되었다.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부모감독에서 자녀의 자기개방이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 연구들에서 보고되었는데 이러한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것은 자녀의 자기개방이 부모 감독과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자기개방의 자발성 여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었다(Crouter & Head, 2002; Keijsers, Branje, & Meeus, 2009; Laird, Pettit, Bates, & Dodge, 2003; Vieno, Nation, Pastore, & Santinello, 2009; Willoughby & Hamza, 2011). 즉 부모의 질문이나 대화 시도에 의한 자기개방이나 부모가 설정한 규칙에 따른 자기개방보다는 청소년의 자발적인 자기개방이 부모감독에 가장 강하게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의 자발적인 자기개방을 통해 부모가 자녀의 일상에 대해 많이 알고 있을수록 자녀의 문제행동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부모감독은 자녀의 소재나 활동에 대해 직접 관찰하고 추적하거나 자녀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해 캐묻거나 규칙을 설정하는 등 자녀를 감독하려는 행동보다는 자녀가 자연스럽게 자기개방을 할 수 있는 심리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자기개방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부모감독이 적절히 이루어지는 데 기여할 예측변수로 부모애착을 설정하여 그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부모애착은 부모라는 중요한 대상에 대해 느끼는 강한 정서적 유대감(Bowlby, 1969)으로서 영아기에 경험한 부모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며 그 이후에도 정신적 표상으로서 지속된다

(Hazan & Shaver, 1994). 즉 부모애착은 장기적인 부모자녀관계 경험에 기인하기 때문에 부모애착의 질이 높은 청소년은 부모를 편안한 대상으로 인식하고 자기개방을 하게 됨으로써 부모가 자녀에 대해 많이 알게 되고 결국 부모감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모감독에 영향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애착을 선정하는 것은 청소년 자녀에 대한 효과적인 부모감독이 가능하려면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고한 연구들(Fletcher, Steinberg, & Williams-Wheeler, 2004; Guilamo-Ramos, Jaccard, & Dittus, 2010; Racz & McMahon, 2011)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런데 부모자녀관계가 부모감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연구들은 대부분 청소년기의 어느 한 시점에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수행되었기 때문에 발달적 변화가 많은 청소년기의 시기에 따라 부모자녀관계가 부모감독에 미치는 효과가 다를 수도 있는데 이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청소년기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전반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다. 청소년은 추상적이며 복잡한 추론이 가능해지는 인지적 발달을 경험하면서 아동기에 비하여 부모자녀관계에서 좀 더 동등한 위치에 있기를 바라게 된다(Youniss & Smollar, 1985). 또한 아동기에는 부모의 판단과 결정에 따랐던 일상생활의 문제들 중 자신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할 수 있다고 지각하는 것들이 생기게 된다(Smetana, 1988). 이에 따라 아동기에 안정적이었던 부모자녀관계의 위계가 흔들리고 관계가 불안정해질 수 있는데 부모는 그러한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며 자녀와의 관계에서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어 부모자녀관계에서 거리감과 갈등이 증가할 수 있다(Laursen & Collins, 2009). 특히 청소년의 발달적 변화가 일어나는 초기에는 청소년과 부모가 관계에서 각자의 적절한 위치나 역할을 아직 찾지 못하여 갈등이 더욱 클 수 있고 그에 따라 부모감독에 필요한 청소년의 협조가 다른 시기보다 적을 수 있다. 그런데 청소년의 성장과 그에 따른 관계 변화의 필요성을 부모가 인식하고 부모와 자녀가 새로운 관계 패턴을 정립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갈등이 감소하며 청소년의 자기개방과 부모의 감독 노력에 대한 청소년의 협조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Collins, 1995).

한편 부모애착도 청소년기에는 표현방식이 변화된다. 청소년기에는 자율성을 확립하는 것이 주요 발달 과제이므로 아동기와 같은 형태의 부모애착이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가 애착 관련 행동을 조정하게 되며 청소년은 부모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부모에 대한 청소년의 의존이 줄어들게 되며 부모에 대한 가시적인 애착행동이 감소하게 된다(Kobak & Duemmler, 1994). 그러나 부모가 애착대상으로서의 의미를 잃는 것은 아니며 청소년이 심한 스트레스를 겪을 때는 부모에 대한 정

서적 의존을 보이게 된다고 한다(Steinberg, 1990). 이처럼 청소년기에는 부모자녀관계에 전반적인 변화가 나타나며 부모애착은 여전히 중요하되 표현방식이 변화되므로 부모애착이 청소년기 시기에 따라 부모감독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모감독에 대한 부모애착의 효과가 시기에 따라 다르다고 가정하는 시간의존적 효과 모형(time-dependent effect model)과 시기에 따라 다르지 않다고 가정하는 시간독립적 효과 모형(time-independent effect model)을 추정하여 비교함으로써 청소년기 부모애착이 부모감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또한 청소년기에 자율성을 키우고 부모로부터 독립해가는 과정은 부모애착의 질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한다. 이에 관한 연구결과들은 애착이 안정적인 청소년은 부모와 갈등이 생겼을 때 문제해결 중심의 생산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특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자율성을 확립하고 심리적으로 독립하면서도 부모와의 애착관계를 유지한다고 보고하였다(Allen, McElhaney, Kuperminc, & Jodl, 2004; Allen, Porter, McFarland, McElhaney, & Marsh, 2007). 즉 부모애착이 안정적인 청소년은 발달적 변화를 겪는 과정에서 자율성과 부모애착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다시 찾아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기 부모애착은 아동기에서와는 다른 의미를 지니며 표현되는 방식도 다르지만 중요성은 유지된다. 특히 부모애착의 질이 청소년과 부모와의 상호작용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부모감독에 대한 예측하는 변수로 부모애착을 살펴보는 본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즉 청소년기 부모감독은 부모가 자녀의 일상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협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애착의 질은 부모감독에 대한 예측변수로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요약하면, 청소년기에는 부모자녀관계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부모감독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부모감독에 종단적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며, 변화가 있다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부모감독이 청소년기에 변화하는 과정에서 부모애착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시간의존적 효과 모형과 시간독립적 효과 모형을 추정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부모감독은 청소년기에 어떠한 변화 경향을 보이는가?
- <연구문제 2> 부모애착은 청소년기의 부모감독에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3> 부모애착이 청소년기의 부모감독에 미치는 영향은 시기에 따라 다른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중2 패널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는 2003년에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층화다단계집락표집 방법으로 추출된 중학교 2학년 청소년 3,449명(남자 1,725명, 여자 1,724명)으로 이루어진 표본을 2008년까지 연 1회씩 총 6회 반복 측정하여 수집된 것이다. 표본유지율은 2차년도 92.4%, 3차년도 90.6%, 4차년도 90.5%, 5차년도 86.0%, 6차년도 82.1%였다.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가 11.9%, 고졸이 43.8%, 전문대졸이 7.0%, 대졸이 30.3%, 대학원졸이 7.0%이었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가 17.2%, 고졸이 57.8%, 전문대졸이 4.9%, 대졸이 18.5%, 대학원졸이 1.6%이었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100만원 이하가 9.5%, 101~200만원이 32.2%, 201~300만원이 28.8%, 301~400만원이 14.0%, 401만원 이상이 15.5%이었다.

### 2. 측정도구

#### 1) 부모감독

부모감독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4문항으로 측정되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5점 리커트 척도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점수의 범위는 4점-2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감독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해당 문항들은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언제 돌아올지를 대부분 알고 계신다.'이다. 4문항의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는 1차년도 .85, 2차년도 .87, 3차년도 .89, 4차년도 .88, 5차년도 .89, 6차년도 .90이었다.

#### 2) 부모애착

부모애착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6문항으로 측정되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5점 리커트 척도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점수의 범위는 6점-3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보고한 부모애착이 안정적임을 의미한다. 해당 문항들은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부모님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부모님과 나는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나는 내 생각이나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께 자주 이야기하는 편이다.', '부모님과 나는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이다. 6문항의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는 1차년도 .86, 2차년도 .88, 3차년도 .88, 4차년도 .89, 5차년도 .90, 6차년도 .89이었다.

### 3. 자료분석

청소년기 부모감독의 변화를 살펴보고 부모감독 변화에 대한 부모애착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ing)을 사용하였다. 먼저 청소년이 보고한 부모감독의 변화율을 알아보기 위하여 무조건 성장모형(unconditional growth model)을 추정하였다. 무조건 성장모형에서 변화율과 변화율의 개인차를 확인한 다음 부모감독의 변화율 개인차에 대한 예측변수로 부모애착을 설정하여 효과를 검증하였다. 부모감독에 대한 부모애착의 효과 검증은 시간의존적 효과 모형(time-dependent effect model)과 시간독립적 효과(time-independent effect model)모형을 추정하여 적합도 차이를 검증함으로써 부모감독 변화에 대한 부모애착의 효과가 청소년기 시기에 따라 다른지, 다르지 않은지를 알아보았다. 결측치는 완전정보 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자료분석 중 기술통계치는 SPSS 12.0을 사용하여 산출하였고 잠재성장모형은 Amos 20.0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 III. 연구결과

잠재성장모형 추정에 앞서 1차년도부터 6차년도까지 부모애착과 부모감독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Table 1>

Table 1.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D) of Attachment to Parents and Parental Monitoring

Variable	Attachment to Parents						Parental Monitoring					
	1	2	3	4	5	6	1	2	3	4	5	6
Mean	20.04	20.05	20.61	20.75	21.09	21.15	12.89	13.48	13.50	13.68	13.80	13.76
SD	4.67	4.55	4.35	4.51	4.61	4.40	3.47	3.35	3.34	3.27	3.38	3.40

Table 2. Correlation between Attachment to Parents and Parental Monitoring

	1. att1	2. att2	3. att3	4. att4	5. att5	6. att6	7. mon1	8. mon2	9. mon3	10. mon4	11. mon5	12. mon6
1	1											
2	.566**	1										
3	.495**	.569**	1									
4	.449**	.506**	.603**	1								
5	.433**	.478**	.528**	.599**	1							
6	.405**	.423**	.479**	.512**	.581**	1						
7	.511**	.345**	.318**	.271**	.270**	.261**	1					
8	.376**	.557**	.347**	.326**	.349**	.284**	.497**	1				
9	.297**	.332**	.535**	.341**	.322**	.284**	.446**	.487**	1			
10	.279**	.313**	.351**	.558**	.379**	.312**	.379**	.428**	.493**	1		
11	.295**	.324**	.331**	.376**	.586**	.370**	.379**	.438**	.467**	.523**	1	
12	.289**	.290**	.331**	.344**	.389**	.575**	.380**	.384**	.444**	.436**	.516**	1

\*\* $p < .01$

Note. att1-att6 represent attachment to parents at wave 1-6, respectively, mon1-mon6 represent parental monitoring at wave 1-6, respectively.

에 제시하였다.

또한 1차년도부터 6차년도까지 부모애착과 부모감독 간 상관관계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6개의 조사 시점에서 모두 부모애착은 부모감독과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 1. 부모감독의 변화 및 변화의 경향

부모감독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아보고 변화가 어떠한 경향으로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무조건 성장모형(<Figure 1>)을 추정하여 부모감독의 변화율을 알아 보았다. 부모감독의 초기치를 나타내기 위해 절편에서 각 측정시점의 부모감독으로 가는 경로는 모두 1로 고정하였고 변화율을 추정하기 위해 기울기에서 각 측정시점의 부모감독으로 가는 경로에 계수 0, 1, 2, 3, 4, 5를 부여하였다.

무조건 성장모형에 대한 적합도 검증 결과,  $\chi^2 = 150.40$  ( $df = 16, p < .001$ ), TLI = .968, CFI = .976, RMSEA = .049로 나타나 양호한 적합도의 기준으로서 사용이 권장되는 TLI > .90, CFI > .90 (Hu & Bentler, 1995)와 RMSEA < .08 (Browne & Cudeck, 1993)을 충족하였다. 또한 초기치의 평균은 13.12, 변화율의 평균은 .156이었고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부모감독의 초기치가 13.12였고 매년 .156씩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초기치의 분산은 5.96, 변화율의 분산은 .151이었고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여 부모감독 초기치와 변화율에 유의미한 개인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감독의 초기치와 변화율 사이에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 $r = -.373, p < .001$ )가 나타나 부모감독의 초기치가 높을수록 부모감독 변화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즉 중학교 2학년에 측정된 부모감독의 정도가 높을수록 부모감독이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비율이 낮았다.

### 2. 부모감독의 변화에 대한 부모애착의 영향

부모감독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유의미한 개인차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 무조건 성장모형에 예측변수로 부모애착을 추가하고 시간의존적 효과 모형과 시간독립적 효과 모형을 추정하였다. 시간의존적 효과 모형은 <Figure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이 모형은 부모애착이 부모감독에 미치는 영향이 시점마다 다르다는 가정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서 각 시점에 부모애착에서 부모감독으로 향하는 경로의 계수들을 자유 추정하였다. 이 모형에 대한 적합도 검증 결과,  $\chi^2 = 212.43$  ( $df = 46, p < .001$ ), TLI = .984, CFI = .991, RMSEA = .032로서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시간독립적 효과 모형은 <Figure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이 모형은 부모애착이 부모감독에 미치는 영향이 시점에 따라 다르지 않다는 가정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서 각 시점에 부모애착에서 부모감독으로 향하는 경로의 계수들을 동일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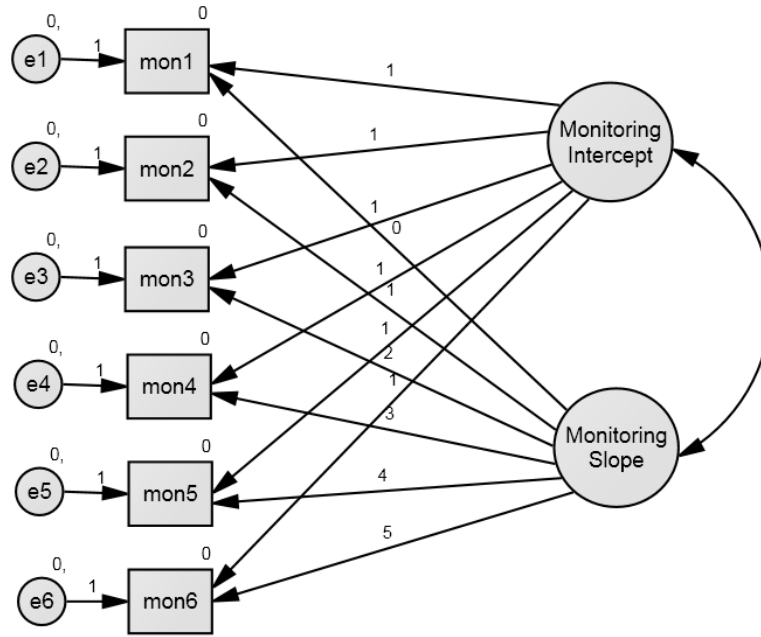


Figure 1. Unconditional Growth Model For Parental Monito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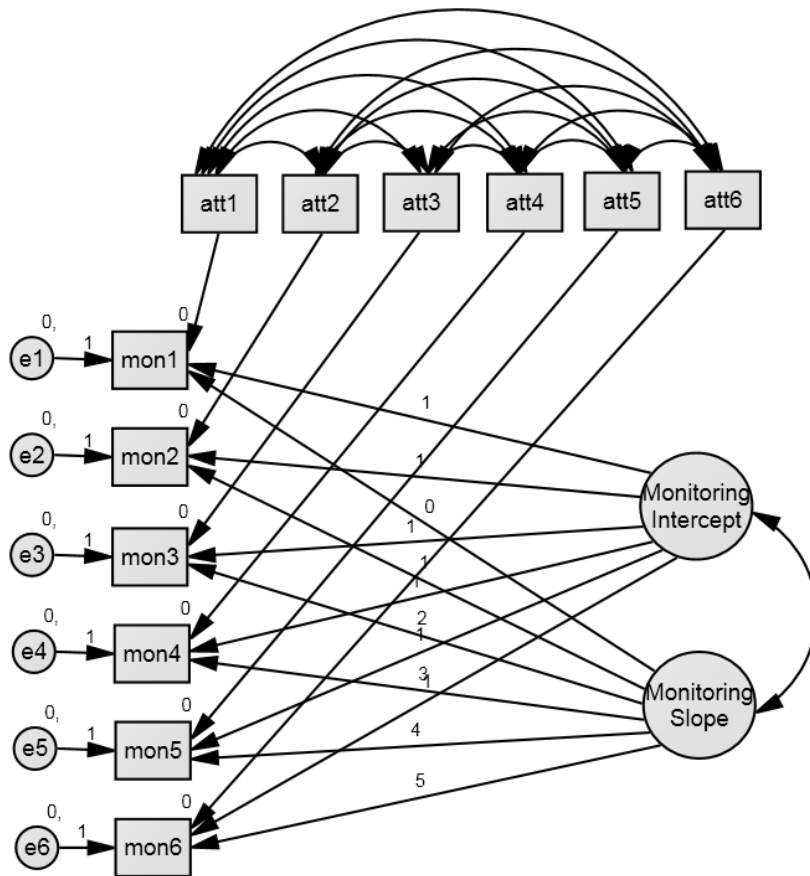


Figure 2. Conditional Growth Model for Parental Monitoring Testing Time-dependent Effects of Parental Attach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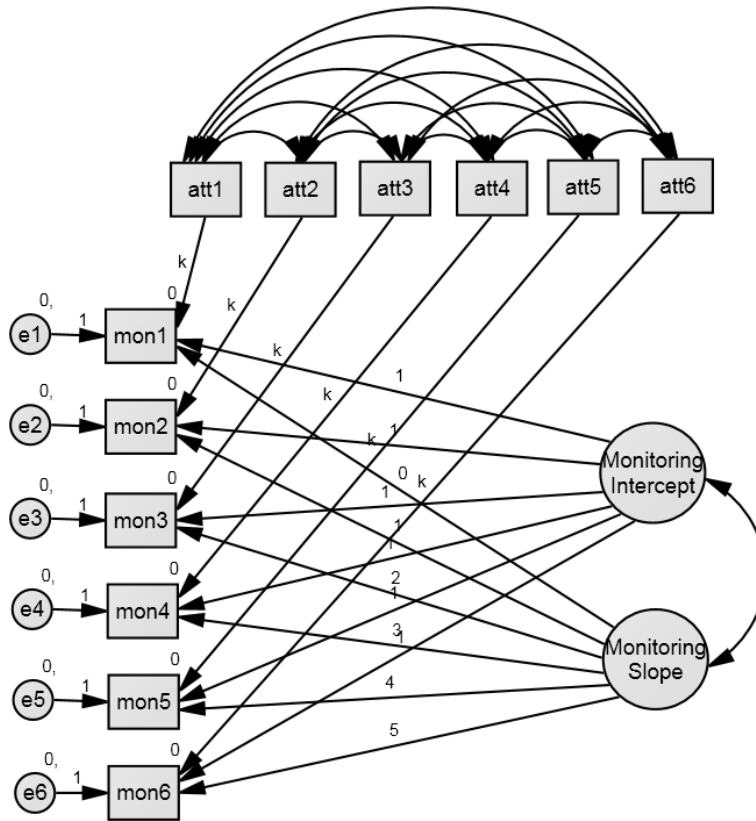


Figure 3. Conditional Growth Model for Parental Monitoring Testing  
Time-independent Effects of Parental Attachment

Table 3. Path Coefficients of Time-Dependent Model

Path	B	$\beta$	SE	t
att1 → mon1	.342***	.470	.008	45.539
att2 → mon2	.370***	.515	.006	59.921
att3 → mon3	.375***	.511	.005	70.566
att4 → mon4	.386***	.540	.005	71.677
att5 → mon5	.393***	.555	.006	61.826
att6 → mon6	.396***	.526	.008	49.534

\*\*\* $p < .001$

Note. att1-att6 represent attachment to parents at wave 1-6, respectively, mon1-mon6 represent parental monitoring at wave 1-6, respectively.

고정하였다. 이 모형에 대한 적합도 검증 결과,  $\chi^2 = 286.73$  ( $df = 51, p < .001$ ), TLI = .980, CFI = .987, RMSEA = .037로서 역시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부모감독에 대한 부모애착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설정하여 추정한 시간의존적 효과 모형과 시간독립적 효과 모형 모두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으므로 두 모형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두 모형의  $\chi^2$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Delta df = 5$ 인데  $\Delta \chi^2 = 74.30$ 으로  $p < .05$  수준의 임계치 11.07을 초과하여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였다. 따라서 <Figure 2>의 시간 의존적 효과 모형이 최종모형으로 선택되었고 부모감독에 대한 부모애착의 효과는 시점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시간 의존적 효과 모형에서 부모감독에 대한 부모애착의 효과를 각 시점의 경로계수를 통해 살펴보면 <Table 3>과 같다. 모든 측정시점에서 부모감독에 대한 부모애착의 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애착에서 부모감독으로 향하는 경로계수의 크기는 중학생 시기에 비하여 고등학생 시기에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즉 부모애착이 부모감독에 미치는 영향은 중학교 2학년 때( $\beta = .470$ ) 가장 작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 $\beta = .555$ ) 가장 컸으며 대학교 1학년 때( $\beta = .526$ )에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 통해 부모감독에 대한 부모애착의 효과는 청소년기의 시기에 따라 다르며 중학생 때보다는 고등학생 때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6회의 반복측정을 통해 종단적으로 수집된 한국청소년패널의 중2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중학교 2학년부터 대학교 1학년까지 부모감독이 변화하는 경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부모애착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잠재성장모형을 추정하여 알아보았다.

잠재성장모형 추정 결과, 부모감독은 청소년의 연령 증가에 따라 유의미하게 변화하였는데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청소년들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외출했을 때 자신이 누구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언제 귀가할지를 부모가 알고 있는 정도가 청소년의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 자녀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부모가 자녀의 일상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 결과는 청소년기에 부모감독과 부모지식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를 제시한 연구들(Keijsers et al., 2009; Kerr et al., 2010; Laird et al., 2009)과 대조적이다. 그러한 연구들은 청소년기에는 자율성이 증대되는 발달적 특성으로 인해 부모자녀관계에서 갈등이 증가하며 부모의 감독행동과 자녀의 자기개방이 줄어들면서 부모지식이 적어지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청소년기 부모감독과 부모지식의 감소 경향을 제시한 연구들은 청소년기에 접어드는 시점, 중학교 입학 시점, 청소년기의 신체적 변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점 등 청소년 초기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이와 달리 부모와의 거리감과 갈등이 가장 큰 시기는 청소년 초기이며 그 이후에는 점차 부모자녀관계가 안정되고 새로운 균형을 찾게 되면서 친밀도가 다시 높아진다거나 부모자녀관계에서 나타나는 의사소통이나 감정표현 방식에는 변화가 있지만 부모자녀관계의 질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연구들(Carlivati & Collins, 2007; Collins, 1995)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청소년 초기는 부모자녀관계에 변화가 시작되면서 갈등이 커지기 때문에 부모감독이

가장 어려운 시기일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자녀가 부모에게 자연스럽게 자신의 일상에 대해 말하거나 부모의 대화시도에 응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자녀에 대한 부모지식이 증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기에 자녀의 일상에 대해 부모가 점차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은 한국 청소년의 생활상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에서 입시 준비가 생활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청소년은 학교나 학원 등 학업 관련 장소에 주로 있게 되므로 그곳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며 누구와 있고 언제 학교나 학원이 끝나는지를 부모가 알기 쉽다는 현실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다. 중고등학생의 일상생활에 대한 연구결과(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9)를 보아도 일과 시간 대부분은 학교나 학원에서 보내며 여가시간은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여가시간도 한정된 장소에서 TV 시청, 인터넷 사용, 게임을 하는 등 제한적인 패턴을 보인다. 따라서 청소년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생활에서 학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게 되고 그에 따라 생활도 더욱 단조로워지면서 부모가 자녀의 일상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부모감독의 변화율에는 유의미한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차가 어디에 기인하는지를 설명하는 변수로서 부모애착을 선정하여 그 효과가 시간 의존적인지 시간 독립적인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시간 의존적 효과 모형과 시간독립적 효과 모형 모두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는데 그 중에서도 시간의존적 효과 모형이 더욱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모애착이 부모감독의 점진적인 증가를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예측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를 통해 청소년기 부모감독은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라는 심리적 환경이 중요한 환경 맥락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감독이나 부모지식 또는 청소년기 부모감독에 매우 중요한 청소년의 자기개방에 관련되는 요인들을 알아본 선행연구 결과들도 이를 뒷받침한다. 청소년이 자신의 일상에 대한 정보를 부모에게 공개할 수 있으려면 상호작용이 원활한 개방적인 가족 분위기를 부모가 만들어야 하며(Stattin & Kerr, 2000), 청소년이 부모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Smetana et al., 2006), 부모가 수용적이며(Darling et al., 2006; Soenens et al., 2006), 가족이 함께 즐거운 활동을 하기도 하는(Willoughby & Hamza, 2011) 등 부모자녀관계가 원만해야 한다. 부모자녀관계가 원만하다면 자녀가 자발적으로 자기개방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부모가 자녀의 일상에 대해 알려고 하거나 자녀의 생활에 대한 규칙을 설정하여 따르게 할 때 자녀가 이것을 수용하고 협조적인 태도와 행동을 보임으로써 부모감독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부모감독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부모가 청소년 자녀에 대해 많이 알고 이에 따라 문제행동을 예방하거나 완화할 수 있으려면 안정적인 부모애착이 선행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청소년기 6년간의 자료를 분석한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갈등이 가장 심한 시기인 청소년 초기부터 그 이후 청소년 후기까지도 부모가 청소년 자녀에 대해 점차 더 많이 알아가게 되는 데 부모애착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부모자녀관계가 청소년의 어느 시점에서든 그 중요성이 유지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부모애착이 부모감독에 미치는 영향이 청소년기의 시기에 따라 다른지를 검증한 결과, 시간의존적 효과 모형이 더욱 적합하여 이것이 최종 모형으로 선정되었다. 시간 의존적 효과 모형이 적합하다는 것은 부모애착이 부모감독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만 청소년의 연령에 따라 다르며 항상 일정하지는 않음을 의미하는데 그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본 결과, 중학생 시기 보다는 고등학생 시기에 부모애착이 부모감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청소년의 나이가 많을수록 부모가 자녀의 일상을 알고 있는 정도가 부모애착에 따라 더 많이 좌우된다는 것이다. 청소년은 성장할수록 자율적으로 일상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커지기 때문에 부모에게 자기개방을 얼마나 할 것인지, 부모의 감독행동에 얼마나 협조할 것인지를 스스로 조절할 여지도 증가됨에 따라 부모와의 관계가 좋다면 자기개방도 자연스럽게 더 많이 하게 되고 부모의 감독행동에 대해서도 더 수용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 자녀의 나이가 많아지고 자율성이 커지게 되어도 부모가 자녀의 생활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자녀를 감독할 수 있으며 그것이 가능하려면 자녀와 원만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에는 부모자녀 사이에 갈등이 심해지며 관계가 나빠진다는 고정관념이 일반적으로 존재하지만 그런 현상은 청소년 초기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며, 그 이후에는 관계의 질이 점차 향상되고 아동기에 부모자녀관계가 원만했다면 다시 그런 상태에 가까워 변화된다는 선행연구(Collins, 1995)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아동기에 부모자녀관계가 나쁘지 않았다면 청소년기에도 부모와의 관계는 여타 관계들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Laursen & Collins, 2009). 이는 청소년기에는 부모애착이 표면적으로는 다른 형태를 띠 수 있으나 중요성이 퇴색되는 것은 아니며 부모애착이 안정적이라면 청소년기가 되었다고 해서 부모자녀관계의 질이 전면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자율성을 길러가면서도 부모와의 애착을 유지해 간다는 점을 밝히 연구들(Allen, McElhaney, Kuperminc, & Jodl, 2004; Allen, Porter, McFarland, McElhaney, & Marsh, 2007)의 주장과도 일관된다. 따라서 자율성이 확립되어 가며 독립적인 생활능력이 커져가는 청소년기 자녀에게도 부모애착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으며 그것이 부모와의 일상적 상호작용이나 부모의 자녀 감독행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녀의 건강한 발달과 적응에 필요한 심리적 환경 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종단적 자료를 사용하여 청소년기 부모감독의 변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알아볼 수 있었고 부모애착이 부모감독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청소년기 시기에 따라 다른지를 알아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후속 연구에서 해결해 나가야 할 제한점도 있다. 청소년기에는 부모감독이 부모의 능동적인 감독행동에 의해 직접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청소년의 발달 특성 상 청소년의 협조에 의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간접적인 부모감독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 자녀의 자발적 자기개방, 부모의 질문에 대한 반응으로서 자기개방, 자녀의 일상에 대한 부모의 규칙 준수 요구를 모두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본 연구를 위해 사용한 자료는 부모감독을 부모가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로 개념화 하여 측정된 것이므로 부모감독의 방법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지 못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부모애착과 부모감독 간의 관계를 살펴볼 때 부모감독 방법에 따라 세분화 하여 본다면 더욱 심화된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소년기 부모자녀관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는 청소년 초기로 알려져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가 시작되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연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6년이라는 장기간을 살펴보는 하였으나 청소년기로 진입하는 시기의 특성을 알아볼 수 없었다.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전환되는 시기부터 그 이후까지의 변화를 알아볼 수 있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제한점들이 있으나 본 연구를 통해 부모가 청소년 자녀의 생활에 대해 많은 정보를 알고 충분히 감독할 수 있으려면 부모자녀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것이 청소년기 어느 연령에서나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린 아동기 자녀와 달리 청소년기 자녀의 경우에는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모가 직접적으로 자녀의 생활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고 자녀가 자신에 대해 부모에게 개방하는 방식으로 감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청소년 자녀의 건강한 발달과 적응에 중요한 부모감독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수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부모자녀관계가 필수적이다.

REFERENCES

Allen, J. P., McElhaney, K. B., Kuperminc, G. P., & Jodl, K. M. (2004). stability and change in attachment security across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5*(6),

- 1792-1805.
- Allen, J. P., Porter, M. R., McFarland, F. C., McElhaney, K. B., & Marsh, P. A. (2007). The relation of attachment security to adolescents' paternal and peer relationships, depression, and externalizing behavior. *Child Development, 78*(4), 1222-1239.
- Barrett, P. M., & Holmes, J. (2001). Attachment relationships as predictors of cognitive interpretation and response bias in late adolescence.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0*(1), 51-64.
- Bowlby, J. (1969). *Attachment*. Vol. 1: Attachment and loss. New York: Basic Books.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162). Beverly Hills, CA: Sage
- Carlivati, J., & Collins, W. A. (2007). Adolescent attachment representations and development in a risk sample. In M. Scharf & O. Mayseless (Eds.), *Attachment in adolescence.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117*, 91-106.
- Cho, H. C., & Yoon, M. S. (2010) A Longitudinal study of Reciprocal relation between Parental Monitoring and Adolescent Drinking.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7*(12), 259-285.
- Collins, W. A. (1995). Relationships and development: Family adaptation to individual change. In S. Shulman (Ed.), *Close relationships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pp.128-154). New York: Ablex.
- Crouter, A., & Head, M. (2002). Parental monitoring and knowledge of children. In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Vol. 3. Being and becoming a parent* (2nd ed., pp. 461-483). Mahwah, NJ: Erlbaum.
- Darling, N., Cumsille, P., Caldwell, L., Dowdy, B. (2006). Predictors of adolescents' disclosure to parents and perceived parental knowledge: Between- and within-person differenc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5*(4), 667-678.
- Dishion, T. J., & McMahan, R. J. (1998). Parental monitoring and the prevention of child and adolescent problem behavior: A conceptual and empirical formulation.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1*(1), 61-75.
- Dishion, T. J., Nelson, S. E., & Kavanagh, K. (2003). The Family Check-Up with high-risk young adolescents: Preventing early-onset substance use by parent monitoring. *Behavior Therapy, 34*(4), 553-571.
- Fletcher, A. C., Steinberg, L., & Williams-Wheeler, M. (2004). Parental influences on adolescent problem behavior: Revisiting Stattin and Kerr. *Child Development, 75*(3), 781-796.
- Guilamo-Ramos, V., Jaccard, J., & Dittus, P. (2010). Expert perspectives on parental monitoring. In V. Guilamo-Ramos, J. Jaccard, & P. Dittus (Eds.), *Parental monitoring of adolescents: Current perspectives for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pp. 205-265).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Hamza, C., & Willoughby, T. (2011). Perceived parental monitoring, adolescent disclosure, and adolescent depressive symptomology: A longitudinal examinat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0*(7), 902-915.
- Hazan, C., & Shaver, P. R. (1994). Attachment as an organizational framework for research on close relationships. *Psychological Inquiry, 5*(1), 1-22.
- Hu, L.-T., & Bentler, P. (1995). Evaluating model fit.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76-99). London: Sage.
- Keijsers, L., Branje, S. J. T., & Meeus, W. (2009). Developmental links of adolescent disclosure, parental solicitation, parental control, adolescent disclosure, and adolescent delinquency.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20*(1), 88-113.
- Kerr, M., Stattin, H., & Burk, W. J. (2010). A reinterpretation of parental monitoring in longitudinal perspectiv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20*(1), 39-64.
- Kim, H. H. (2009). The relationships between autonomy and adjustment in early adolescence: moderating effects of parental affective parenting.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6*(7), 127-147.
- Kim, H.-M., & Lim, E.-M. (2012). The effect of parent-child relation on the youths' vocational value change.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5*(4), 57-73.
- Kobak, R. R., & Duemmler, S. (1994). Attachment and conversation: Toward a discourse analysis of adolescent and adult security. In K. Bartholomew &

- D. Perlman (Eds.), *Advances in personal relationships: Vol. 5. Attachment processes in adulthood* (pp. 121-149). London: Jessica Kingsley.
- Laird, R. D., Marrero, M. D., & Sherwood, J. K. (2010). Developmental and interactional antecedents of monitoring in early adolescence. Parental monitoring of adolescents. In V. Guilamo-Ramos, J. Jaccard, & P. Dittus (Eds.), *Parental monitoring of adolescents: Current perspectives for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pp. 39-66).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Laird, R. D., Criss, M. M., Pettit, G. S., Bates, J. E., & Dodge, K. A. (2009). Developmental trajectories and antecedents of distal parental supervision.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9*(2), 258-284.
- Laird, R. D., Pettit, G. S., Bates, J. E., & Dodge, K. A. (2003). Parents' monitoring-relevant knowledge and adolescents' delinquent behavior: Evidence of correlated developmental changes and reciprocal influences. *Child Development, 74*(3), 752-768.
- Laursen, B., & Collins, W. A. (2009). Parent-child relationships during adolescence. In R. M. Lerner & L. Steinberg (Eds.),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Vol. 2. Contextual influences on adolescent development* (3rd ed., pp. 3-42). New York: Wiley.
- Lee, S. A. (2009). Influence of family resources and parents' caring attitudes on an adolescents' school record.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4*(1), 5-24.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9). *International comparison on everyday live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Government Publication No. 11-1351000-000305-01). Seoul, Korea.
- Park, J. K., & H. S., Doh (2001). The effects of maternal monitoring and information sources of maternal knowledge on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behaviors of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39*(12), 129-140.
- Racz, S. J., & McMahan, R. J.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knowledge and monitoring and child and adolescent conduct problems: A 10-year update.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14*(4), 377-398.
- Smetana, J. (1988). Adolescents' and parents' conceptions of parental authority. *Child Development, 59*(2), 321-335.
- Smetana, J. G., Metzger, A., Gettman, D. C., & Campione-Barr, N. (2006). Disclosure and secrecy in adolescent-parent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77*(1), 201-217.
- Soenens, B., Vansteenkiste, M., Luyckx, K., & Goossens, L. (2006). Parenting and adolescent problem behavior: An integrated model with adolescent self-disclosure and perceived parental knowledge as intervening variables. *Developmental Psychology, 42*(2), 305-318.
- Sohn, B. Y., Kim, S. J., Park, J. A., & Kim, Y. H. (2012). The effects of desirable parenting attitudes upon life satisfaction in early adolescence: The mediating effects of school adjustment and ego-resilience and multiple group analysis across gender. *Studies on Korean Youth, 64*(2), 149-173.
- Stattin, H., & Kerr, M. (2000). Parental monitoring: A reinterpretation. *Child Development, 71*(4), 1072-1085.
- Steinberg, L. (1990). Interdependency in the family: Autonomy, conflict, and harmony in the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 In S. S. Feldman & G. Elliott (Eds.), *At the threshold: The developing adolescent* (pp. 255-276).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teinberg, L. (2011). *Adolescence* (9th ed.). New York: McGraw-Hill
- Steinberg, L., & Silk, J. S. (2002). Parenting adolescents. In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Vol. 1. Children and parenting* (2nd ed., pp. 103-134). Mahwah, NJ: Erlbaum.
- Vieno, A., Nation, M., Pastore, M., & Santinello, M. (2009). Parenting and antisocial behavior: A model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 self-disclosure, parental closeness, parental control, and adolescent antisocial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45*(6), 1509-1519.
- Willoughby, T., & Hamza, C. A. (2011). A longitudinal examination of the bidirectional associations among perceived parenting behaviors, adolescent disclosure and problem behavior across the high school yea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0*(4), 463-478.
- Youniss, J., & Smollar, J. (1985). *Adolescent relations with mothers, fathers, and friend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접수 일 : 2013년 11월 05일
- 심사 일 : 2013년 12월 13일
- 게재확정일 : 2014년 01월 09일